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		학 번	
학과/전공	반도체전공	파견대학	Sciences Po Lille
파견기간	2025 년 2 학기	파견국가	프랑스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곁들여 작성하고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44@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교환학생 보고서_파견대학명_학생명_학번_파견학기”로 하여 송부

※마감일: 2025. 12. 19. 14:00 KST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현지대학 신청서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합니다. 본교에서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파견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라고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파견교 신청서 작성, 즉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기본정보과 CV(이력서 또는 Resume라고도 하죠), 그리고 본교에서 발행한 노미네이션 레터가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V가 익숙하지 않을텐데 이는 간단한 이력서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언어 자격증이나 수상경력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 것이죠. 이를 보내고 나면 입학허가서를 기다리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앙스포릴은 이번 학기 기준으로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학허가서를 보내주었어요. 이 학교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입학허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수령하지 않아도 메일로 자료가 도착하게 돼요. 이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비로소 비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노미네이션 레터. 본교에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교 담당자분께서 작성하여 학생에게 보내 주면, 그 파일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폼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화면에 아래 화면이 뜬다면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successfully.
The admission team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으면 몇 주 이내로 입학허가서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2. 비자 및 항공 (0.5~1 장)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프랑스 비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총 2번의 대사관 방문과 예약이 필요하며, 서류 또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랑스 비자는 크게 1. 캠퍼스 프랑스, 2. 대사관 서류 면접 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사관 서류 면접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잡기 힘드니 캠퍼스 프랑스 면접이 확정되면 차주 이후(캠퍼스 프랑스 서류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로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퍼스 프랑스는 학업 관련 비자를 취득할 때 필요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때 CV가 또 필요한데 캠퍼스프랑스에서 요구하는 CV의 경우 양식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려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업 기간에 공백이 없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무엇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재학증명서는 본교 무인기거나 사이트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어 어학점수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업 동기서도 작성하셔야 하고요. 캠퍼스프랑스 행정처리비 또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캠퍼스프랑스 사이트에는 입학허가서를 보내야 하는 창이 있는데, 본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야하는지, 파견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야하는지 안내가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작성할 당시 담당자의 변동이 있던 시기라 혼선이 있었는지, 본교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직접 파견교 담당자분께 연락을 하여 파견교 측에서 국내 캠퍼스프랑스 메일로 입학허가서를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안내에 따라 파견교 담당자분께 캠퍼스프랑스로의 입학허가서 발송을 요청드렸고, 캠퍼스프랑스 측에 확인하였으나, 캠퍼스프랑스에서는 서류 반려를 하며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에서 지정된 교환학생 리스트 양식을 통해 직접 캠퍼스 프랑스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입학허가서는 “본교”에서 캠퍼스프랑스 측으로 발송하는 것이 맞으니, 본교 담당자분께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매년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측에 메일로 연락하면 당해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France-Visas
The official visa website for France

[Frequently asked questions](#)
[Track an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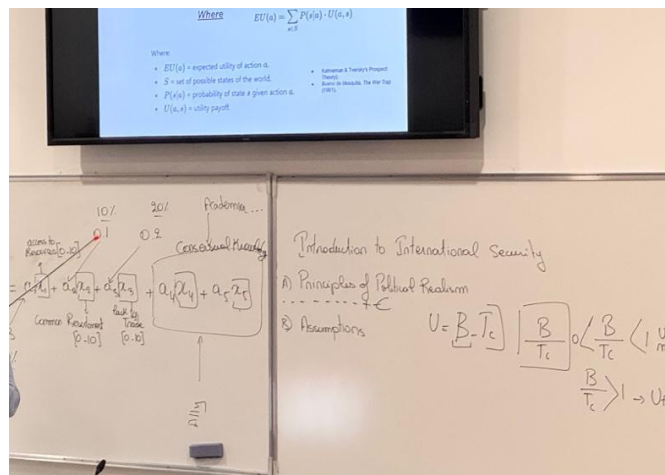
en ▾

2차 대사관 서류 면접은 실제로 서류만 평가합니다. 간단한 질답이 있기는 한데 캠퍼스프랑스 면접보다는 매우매우 간단합니다. 캠퍼스프랑스에서는 수학언어로의 자기소개가 필요하고, 이후로는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하며, 대사관 서류 면접은 서류 확인이 위주라 아주 간단한 본인확인 및 수학 목적만 확인합니다. 서류로는 여권, 신분증(여권 제외), 여권 사본(사증면 전체 복사), 비자 신청서, 비자 신청서 바코드, 캠퍼스프랑스 승인 서류, 유로화 영문 잔액증명서, 거주증명서(프랑스 체류지), 예약확인서, 비자 사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연속으로의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낭비되는 시간 없이 한번에 모든 행정처리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약과 서류가 한번에 통과되고, 1차와 2차 사이 인터뷰 기간이 가장 짧게 예약을 잡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한달 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까지 소요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비자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면접 이후 비자 발급 기간 동안에는 여권이 대사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수강 과목의 경우 1학기과 2학기 개설되는 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학기 개설 과목의 경우 시앙스포릴 영문 사이트에서 개설되었던 과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과 다른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원하는 과목이 온라인에 존재한다면, 대부분 Microsoft Teams 를 이용하거나 Zoom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다른 나라(미국 등)에 계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앙스포릴, 국제 관계 연구에 특화된 학교이기에 대부분의 수업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업 종류로는 팀플이 존재하는 수업도 있고, 학기 내내 수업만 듣고 학기말 과제를 제출하는 수업도 있으며, 수업 중간중간 시험을 보는 수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에세이 작성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수업은 이를 기말평가에 활용하며, 이 에세이만 최종 성적에 반영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비중 또한 그리 작지는 않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 교환학생이 신청하는 수업은 국제 강의(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프랑스어 수업을 신청하여도 되지만 대부분은 영어가 익숙하기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시앙스포릴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수강신청 시 따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업 강도는 수업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강의를 진행되는 수업이 있는 반면, 수업 중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도 존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과목명 확인 후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평가 방식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 있는 수업을 골라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업 분위기는 대부분 교환학생들이 신청하는 수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현지 학생들은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환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주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학생을 만난다기 보다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기숙사(숙소)에 관하여,

시앙스포릴, 기숙사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한 부분 중 하나인데, 제공되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 찾아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에어비앤비를 통해 장기 투숙을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교에서는 Studapart 라는 중개 플랫폼을 소개하여 줍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중개하여 주는 매물도 있고, 개인이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받는 매물도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발견하여 메시지를 보냈을 때, 또는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Studapart 에서 직접 중개하는 곳인지 확인 가능하니 이

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Studapart에서 직접 중개하는 매물로 계약을 하였고,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와 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월세 보증금은 월세의 1~1.5배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월세의 0.8~1배 정도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택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집 계약 시 보증인 또는 보증 사이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식당에 관하여,

시앙스포릴, 식당 없습니다. 하지만 1층에 카페테리아는 존재합니다. 카페테리아에는 바게트 샌드위치나 간단한 디저트, 음료, 레토르트 음식 등 식사가 될 만한 음식은 존재합니다. 근처에 ESJ Lille 과 같이 사용하는 식당은 있습니다. 지도에 Crous Restaurant 라고 검색하면 학생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 한 끼의 가격은 3.3유로로 비싼 물가의 프랑스에서 저렴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학생식당 모두 izly 라는 충전식 학생증을 이용합니다. 앱을 통해 학생증에 잔액을 충전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프랑스 계좌 또는 유럽에서 발행한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잔액 충전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잔액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하면 요리 실력이 있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릴의 중앙역인 Lille Flandres 역 근처에 까르푸라는 대형 마트가 있으니 여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까르푸와 까르푸 시티는 다른 마트로, 까르푸는 대형 마트, 까르푸 시티는 편의점 정도의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부분 릴유럽이나 릴플랑드르역 근처에 거주지를 잡으면 까르푸를 많이 이용하게 될겁니다.

도서관에 관하여,

시앙스포릴은 크게 두 개의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본관과 도서관. 딱 두 개의 건물만 존재합니다. 도서관의 경우 본관 바로 앞에 위치해있으며, 학생증 검사 및 태그 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또한 도서관에서 가능하며, 본관에서는 0층 Salle Informatique 방에서 프린트 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1인석도 있으며, 큰 테이블이 있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학생 활동에 관하여,

프랑스나 유럽 교환학생에 대해 조사를 해보셨다면 ESN에 대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에 ESN에서 직접 나와 자신들을 소개해줍니다. 약간 교환학생 모임?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따로 ESN 카드도 만들지 않았고, 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이나 계획에 맞으실 것 같다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통은 Whats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ESN 단체방이 존재하고, 시앙스포릴 또한 국제학생 전체를 Whatsapp 단체방을 통해 관리합니다. 단체방에 각종 공지나 행사 내용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관광에 관하여,

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릴의 핵심은 주변 나라랑 가깝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것이죠. 공항을 이용하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리 CDG 공항을 추천드리고, 부득이하게 벨기에 BRU 공항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최대한 일찍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벨기에 공항과 비교했을 때 파리 공항이 훨씬 쾌적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리 공항까지는 TGV 직행이 있으며, 벨기에의 공항의 경우 갈아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시고 싶으시다면 TGV MAX JEUNE 을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월 79유로이며, 프랑스 내 TGV 열차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정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한 열차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표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로스타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수업 일정의 변동이 잦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기에는 부담이 생기고, 기한이 가까워져서 예약하기에는 가격이 2~3배 정도 비싸집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비행기를 이용하며, 저의 경우도 CDG 공항에서 에어프랑스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TGV MAX 가입 시 릴과 CDG 공항 간의 직행 열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이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TGV MAX 의 경우 몇 개월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가입 전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홍보 (0.5 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수업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을 처음 만나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많아지며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신 학교들을 서로 얘기하고 자신의 학교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학교 문화는 어떤지, 어느 활동이 있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보 활동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홍보에 있어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본교에 요청하면 홍보 물품들을 보내주신다는 부분을 본교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교에서 본교 홍보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 이를 활용해서 학교에 대한 홍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대부분 많은 기대와 함께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종강이 다가오고,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쓰다 보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요. 올해 초부터 준비한 모든 과정이 벌써 끝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비자 절차들을 마치고 비행기에 타기까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돌아갈 때가 되니 아쉬운 기분이 큼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이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생활해보며 자립심도 키울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힘들긴 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지역이자 국가이며, 새로운 언어로 소통을 해야하다보니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14시간 30분의 긴 비행 이후 숙소까지의 이동, 그 숙소에 대한 계약과 점검 등을 모두 혼자 해내야만 합니다. 그 이동 과정도 스스로 알아보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라의 행정과 문화에 적응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대학의 수업 방식은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았으며,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 또한 많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팀플을 하며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해외 경험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다른 학생들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쉬는 기간동안 주변 다른 나라도 구경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장점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여 있다는 것이죠. 기차로 국경도 넘어보고, 버스로도 넘어보고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을 해보고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 경험은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에 있어 이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생 생활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비교적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교환학생 생활은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행정 업무부터 수업 선택, 생활비 관리까지 모두 혼자 해결하며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분명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